



김춘진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현장 경영 나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이 농수산식품산업의 혁신과 발전을 위해 2023년 현장 경영에 나섰다. 김 사장은 전남 함평군청(군수 이상익)을 지난 25일 찾아 글로벌 GAP인증 지원, 지역 특화작목인 사인머스켓의 수출 단지 조성 및 축산물 가공품 수출 확대를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먹거리 차원의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저탄소 식생활 '그린푸드 데이'에 대해 설명하고, 캠페인 확산 등 ESG 실천으로 건강한 지구를 만드는 데 함께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김 사장은 함평군 소재 김 수출업체인 (주)나이프(대표 노미숙)를 찾아 김 생산·가공 처리시설을 살펴보고, 수출 유망품목 발굴·육성과 수산물의 수출 시장 확대 방안을 모색했다.

현장에서 김 사장은 "김은 수산식품 수출 1위 품목으로 전 세계 110여개국에 수출되고 있다. 지난해 전남 김 수출액은 1억9200만 달러로 전남 농수산식품 수출 전체 규모 중 약 34%를 차지할 정도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앞으로도 수산 바이처사업, 해외인증등록 등 다양한 수출지원 사업으로 지역 특산물을 고부가가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해 수출 확대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6년 사업을 시작한 (주)나이프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취득했으며, 일본 베트남 중국 등 8개국으로 조미김 및 스낵김을 수출해 지난해 162만 달러 수출실적을 기록했다.

공사에서 한국인으로 참가한 2022 파리 국제식품박람회'에서 꼬마 김밥용 반죽김이 바이어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으며, 김 가공품으로 37만 달러의 수출실적 실적을 거뒀다.

여기에 박은하 함평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실증시험포(재배실용 농지)를 방문해 함평군의 지역 특화작목인 대추 재배 과정을 살펴보고, 고품질 생대추 육종 및 유통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함평군은 지난 2017년부터 대추를 지역특화작목으로 선정해 관내 대추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맞춤형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고품질 대추 생산을 통한 생대추 명품화 및 농가소득 향상을 힘쓰고 있다. /김영태 기자

전북개발공사, 종합청렴도 우수기관 8년 연속 선정

전북개발공사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우수기관(2등급 이상) 인증을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국 5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측정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정원 500명 이상 혹은 부동산 교통 시설관리 등 국민생활 밀접 업무를 수행하는 195개 공공기관단체 중에 전북개발공사는 종합청렴도 2등급을 획득, 부패취약분야 개선 등 노력도를 정부에서 인정받았다.

전체 평가대상기관 종합청렴도 평균 81.2점, 지방공사·공단 평균 88.6점보다 각 5.1점, 2.7점 높은 86.3점으로 전국 16개 도시개발공사 중에서도 최상위 수준을 보였다.

이로써 공사는 지난 2015년부터 8년 연속 종합청렴도 2등급을 획득, 전국 50개 공공기관 중 지속적인 청렴정책 수행 측면에서 가장 청렴한 지방공기업으로 자리매김 했다.

전북개발공사 관계자는 "20년만에 진행된 개편된 권익위원회의 종합청렴도 평가를 통해 우리 공사의 지속적인 반부패 추진 노력이 인정을 받은 것 같아 힘이 납니다"며 "오늘의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 신뢰받고 공정한 업무처리에 매진하는 지방공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남원시공무원노동조합, 이웃돕기 성금 100만원 기탁

남원시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남원시지부(지부장 이승일)가 희망2023 나눔캠페인을 맞이하여 이웃돕기 성금 1백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남원시공무원노동조합은 제11기를 출범하였으며, 조합원간의 소통과 신뢰를 목표로 공무원의 기본권보장 및 권익신장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이승일 지부장은 "희망2023 나눔캠페인을 맞이하여 조합원들의 정성을 모아 성금을 기탁하게 되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는데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잘 전달되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성금을 기탁해준 남원시공무원노동조합에 고마움을 전한다. 이번 성금은 어려운 이웃이 한 줄기 빛을 품을 수 있게 해주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기탁된 성금은 전북공동모금회를 통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성금 기탁을 희망하는 분들은 남원시청 주민복지과 희망복지지원단(☎820-6333)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남원=김기우 기자

진흥원 · 입주기업 간 상생 다짐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입주기업 대표자 신년 하례회 개최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이은미 원장, 이하 바이오진흥원)은 진흥원 입주기업 30개사 대표 및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신년 하례회를 26일 개최했다. 바이오진흥원은 창업보육센터 중심의 창업기업 지원과 첨단바이오식품센터의 연구개발특구 연구소기업 지원, 바이오식품산업화센터의 GMP생산 인프라기업 지원의 Three-Track 지원체계를 지속가능한 성장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22년에는 신규 우수 입주기업 8개사를 발굴 유치해 현재 총 30개사 기업이 입주하고 있다. 신년 하례회를 통해 입주기업 대표자 및 임직원들 간 새해인사를 나누고, 2023년 입주기업 매출 고공, 지식재산권 인증 등 주요성과 공유와 2023년 진흥원의 지원 계획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2022년 진흥원 입주기업은 국내의 경기침체의 어려움 속에서도 마케팅 판로개척 및 신제품개발 애로해결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전년 대비 매출 129% 상승, 고용 107% 성장 지식재산권 52건, 인증 25건 획득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뤄냈다.

성과를 기반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 등 총 6건의 수상실적을 보였다.

특히 바이오진흥원은 창업기업 지원의 성과를 인정받아 벤처창업진흥유공 포상 지원기관 분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을 획득했다.

바이오진흥원은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의 수요가 많아



임대공간이 부족한 실정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 다각화 및 발굴을 통해 입주기업 지원에 민전을 기할 것이다.

또 진흥원과 입주기업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 애로사항 해결과 기업 성장에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업무에 임할 것을 다짐했다.

(주)산한바이오 이석우 대표는 "하직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위기 극복 및 입주기업의 성장과 애로해결을 위해 애써주시는 진흥원 원장님과 임직원분들에 감사드리며, 무엇보다 현장에서 기업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진흥원과 입주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이은미 원장은 "모든 입주기업들이 성장하고 번창하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한다.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지원 시스템으로 입주기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김영태 기자



군산대, 역대 최강한파 속 사랑의 연탄 봉사 활동

국립군산대학교는 26일 군산시 옥구읍과 회현면 일대에서 '2022학년도 동계 제2차 사랑의 연탄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온기를 전한다!"를 슬로건으로 진행된 이 봉사활동은 겨울철 난방에 취약한 가정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군산대학교 이장호 총장 겸기욱 학생처장을 비롯해 교직원 및 학생 등 40명이 참여했고, 옥구읍과 회현면 일대 난방 취약가구에 연탄 1,500장을 전달했다.

무역학과 이진권(4학년) 등 참가 학생들은 입을 모아 "역대 최강 한파 속에서 우리 지역 난방취약 가구에 자그마한 온기를 전할 수 있게 되어 더 큰 보람을 느끼게 되었고, 앞으로도 봉사 기회가 있을 때마다 참여해 이웃사랑을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

이장호 총장은 "지역중심대학으로서 지역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해 운영하며 지역민과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영역을 넓히고 있는데, 연탄봉사활동처럼 지역민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프로그램들은 학생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는 효과가 커서 규모는 작지만 뜻깊은 활동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겸기욱 학생처장은 "군산대학교는 지역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연중 개발해서 운영하며 지역사회와의 공동체 의식과 연대감을 증대하고 있고, 이런 유대감을 대학발전의 동력으로 삼는 긍정적인 순환체계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학생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관곤 기자



정읍시, 슈메이커 양성사업 교육생 수제화 기탁

정읍시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점 추진하고 있는 슈메이커 양성사업 교육생들이 26일 이룸타운가게에 수제화 200켤레를 전달했다.

이날 기탁한 수제화는 미래의 수제화 장인을 꿈꾸는 20여 명의 교육생이 1대1 도제 방식교육을 통해 기술을 익히며 만든 제품이다.

교육생들은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으로 신사회, 수녀화, 운동화 등 세상에 단 하나뿐인 수제화를 제작했다.

이룸타운가게는 기증받은 수제화를 소비자께 판매하고, 판매 수익금은 소외계층 이웃을 지원하는 데 사용할 예정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북농협, 우리 지역 타 시 · 군 고향사랑기부 전파

전북농협(본부장 김영일)이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맞춰 우리 지역 타 시군 기부문화 전파를 위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26일 전북농협에 따르면 전북농협 임직원은 자율적으로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하고 있으며, 새해 첫 출근일 전북도지사 현장경영에 앞서 익산원예농협 공판장에서 고향사랑기부제 알리기 퍼포먼스를 펼쳤다.

이날 행사에는 김관영 도지사, 한병도·김수홍 국회의원, 서거석 교육감 등이 참석했으며 기부자인 익산원예농협 직원들은 우리 지역 타 시군에 기부를 진행했다.

전북농협은 본인의 주소지가 아닌 인접 시군에 기부하는 자율적인 사례 등의 기부문화 확산을 통해 함께 성장하는 전라북도도를 만들어가겠다는 방침이다.

김영일 본부장은 "고향사랑기부제는 올해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많은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며 "본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특색 있는 답례



품 개발과 적극적인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농협이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모든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 기부를 하면 세액공제 및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김영태 기자

농협 고창군지부, 고향사랑기부제 릴레이 기부행사 참여

NH농협 고창군지부(지부장 이문구)는 '2023 세계유산도시 고향 방문의 해'와 2022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려는 취지로 전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각자 희망하는 전라북도 시군에 기부하는 릴레이 기부행사와 운송수익의 일정부분을 해당지역 지자체에 공익기금으로 전달하는 NH 고향사랑 기부작금 기금행사를 실시했다.

이날의 행사에서 이문구 지부장은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농업, 농촌을 위해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고창군 금고은행으로서 농협은 고창군 관내 지역 농축협과 함께 전담참여 운영과 전사적인



홍보 사업참여로 고향사랑기부제 정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성 기자



순창군 육천장학회 장학금 기탁 잇따라

명실상부 교육 1번지로 발돋움하고 있는 순창군 육천장학회에 연이은 기부 소식 이어지고 있다.

순창군은 26일 하나스톤(주)(대표 조영휘)에서 균형을 통해 장학금 50만원을 기탁했다고 전했다.

순창 소재 (주)하나스톤은 기초석 생산업체로 지난 2020년 기탁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육천장학회에 장학금을 기탁해 오는 등 순창 지역의 인재 양성에 꾸준히 기여 해오고 있다.

하나스톤 조영휘 대표는 "작은 성금이나마 순창군의 미래인 학생들에게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 성금을 기탁했다"면서 "앞으로도 순창군과의 상생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전주시재향군인회, 2023년도 제64차 정기총회

전주시재향군인회(회장 김용덕)는 26일 연기3층 대연회실에서 제64차 전주시재향군인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총회는 전주시재향군인회 대의원 187명이 참석(대상 206명)한 가운데 1·2·3부로 나눠 감사보고, '22년도 회계결산보고'를 비롯해 2023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 4개 의안을 의결했다.

또 분회장, 도회장 시회장 표창과 우수동회장 등 향군발전 기여한 유공자를 포상하고, 신입 동회장 30명에 대한 도회장의 승인장과 함께 축하, 격려하고 화합을 다지는 계묘연의 첫 장을 펼쳤다.

올해는 '28년도 30개 동개선통회 결과' 새로이 선출된 180명의 대의원이 처음으로 자리를 같이해 의결하는 뜻깊은 총회였다. 의류업(고경실업)을 하는 조의현남께서 800여 만 원 상당의 '최고급기능성 발열내외'를 후원해 대의원, 회원 가정, 시설에 고루 나눠 줄 겨울을 보낼 수 있는 큰 도움을 줬다. /김영태 기자

전북소방본부, '2023년도 적십자회비' 전달

전북소방본부는 전북소방본부에서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에 '2023년도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했다.

26일 전달식은 최민철 소방본부장, 김삼곤 방호예방과장, 이재현 현장조사분석팀장, 이선홍 적십자전북지사 회장, 권영일 적십자전북지사 사무처장, 김용원 회원홍보팀장이 참석했다.

이날 최민철 전북소방본부장은 "도내 크고 작은 화재·수해 현장에서 묵묵히 그 역할을 다해온 노란조끼의 적십자 봉사원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도내 이재민 구호 및 지원 등 인도주의 실현을 위한 적십자 운동에 적극 동참 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는 "세상을 밝히는 착한미음, 적십자회비라는 슬로건으로 2023년도 적십자회비를 모금 중이다. /김영태 기자

인사

농촌진흥청

- ◇고위공무원 ▲기획조정관 이상호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생물부장 이상재 ▲경상북도 농업기술원

장 조영숙

- ◇과장급 ▲개발협력팀 ▲국립식량과학원 중부작물부 재배환경과장 박항미
- ◇과장급 전보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 선준규 ▲기획조정관실 혁신행정법무담당관 송영상
- ◇도농업기술원 국장 ▲경상북도 농업기술원 농촌자원국장 임민정